

“평화통일 염원하며 걸어요”...8월 'DMZ 155마일 걷기' 개최



한반도 동에서 서로 길게 뻗은 DMZ 일원을 걸으며 도전 정신과 인내심을 함양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DMZ 155마일 걷기- 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 행사가 오는 8월 열립니다.

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DMZ 155마일 걷기'는 국민들에게 생명과 평화가 숨 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만 20세 이상의 성인 100여 명을 선발해 8월 5일부터 20일까지 1일 평균 16km씩을 걸으며 15박 16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고성에서 출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에 이르기까지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걷게 되며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DMZ가 지닌 생태·문화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 '작은 음악회', 'DMZ 체험전시회'와 함께 걷기 구간 곳곳의 명소와 유적지 탐방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중주기간 내내 다큐멘터리 촬영감독이 동행해 참가자들의 희노애락을 영상에 담아 DMZ의 생생한 감동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7월 5일까지 'DMZ 155마일 걷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일정 요건의 건강검진, 체력검정 등을 거쳐 최종 걷기 대원을 선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석현 기자 (burok@kbs.co.kr)

고성부터 파주까지 250km... '통일 염원' DMZ 걷기 행사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통일 염원 DMZ 걷기'입니다.

오는 8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DMZ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휴전선을 따라 250km를 걷는 뜻깊은 행사인데, 생명과 평화가 숨 쉬는 비무장지대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만 20세 이상 100여 명을 모집해 8월 5일부터 15박 16일간 하루 평균 16km씩 걷게 되는데, 코스 중에는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민간인출입통제선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와 유명 인사를 초청한 토크 콘서트, 작은 음악회, DMZ 체험 전시회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7월 5일까지 'DMZ 155마일 걷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건강검진, 체력 검정 등을 거쳐 최종 걷기 대원을 선발합니다.

누리꾼들은 "와~ 역사의 현장을 걸으며 평화통일을 기대해 볼 좋은 기회네요!" "100명 안에 들려면 지금부터 몸 좀 만들어야겠군ㅋㅋ"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화통일 염원하며 DMZ 걸어요”

경기도, 8월 '155마일 걷기' 행사
민통선 구간 포함- 참가자 모집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비무장지대(DMZ) 250km를 걷는 행사가 오는 8월 열린다.

경기도는 DMZ 일원을 걸으며 도전 정신과 인내심을 함양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DMZ 155마일 걷기-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사진) 행사를 오는 8월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다음 달 5일까지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DMZ 155마일 걷기'는 국민에게 생명과 평화의 숨 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오는 8월 5일부터 20일까지 하루 평균 16km씩 총 250km를 걷게 된다.

걷기 코스는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 인제,



양구, 화천, 철원, 경기 연천을 거쳐 파주까지 경기-강원 접경지역이다. 이번 코스에는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이 포함돼 있다.

도는 이외에도 DMZ가 지닌 생태, 문화,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행사로 전문가·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 DMZ 체험전시회, 경기 구간 곳곳의 명소 및 유적지 탐방 등도 진행한다. 특히 북측과 인접한 접경지역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DMZ 횡단 걷기' 행사로, 8월 5일 출정식에는 이를 기념하고자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주 기간 내내 다큐멘터리 촬영감독이 동행, 참가자들의 희로애락을 영상에 담아 DMZ의 생생한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시아투데이

평화통일 염원하며 DMZ 함께 걸어요

경기도, 내달 5일까지 참가자 모집

한반도 동(東)에서 서(西)로 길게 뻗은 DMZ 일원을 걸으며 도전 정신과 인내심을 함양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DMZ 155마일 걷기-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 행사가 오는 8월 열린다.

경기도는 다음 달 5일까지 경기-강원 DMZ 일원 250km를 함께 걸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DMZ 155마일 걷기'는 국민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숨 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고자 마련된 행사다.

행사는 국방부, 강원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만20세 이상의 성인 100여명을 선발해 오는 8월 5일부터 20일까지 1일 평균 16km씩을 걸으며 15박 16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강원 고성에서 출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에 이르기까지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걷게 된다. 걷기 코스에는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이 포함돼 있다.

숙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강원 내 민간 숙소시설이나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를 적절히 병행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DMZ가 지닌 생태·문화·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 '작은 음악회' 'DMZ 체험전시회', 경기구간 곳곳의 명소 및 유적지 탐방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북측과 인접한 접경지역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DMZ 횡단 걷기' 행사로 오는 8월 5일 출정식에는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낼 계획이다. /수원=김주홍 기자

매일경제

2019년 06월 18일 (화)

인물 36면

생명·평화통일 기원

'DMZ 155마일 걷기'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휴전선을 따라 250km를 걷는 행사가 오는 8월 5~20일 열린다.

경기도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DMZ 155마일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생명과 평화가 숨 쉬는 비무장지대(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올해 처음 마련됐다.

행사는 만 20세 이상 100여 명을 모집해 15박16일간 하루 평균 16km씩 걷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고성에서 출발해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까지 걷게 된다. 이번에는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민간인 출입통제선 구간도 포함됐다. 숙박은 경기·강원 지역 민간 숙박시설이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

행사 기간 DMZ의 생태·문화·역사를 체험하는 토크 콘서트와 작은 음악회, DMZ 체험전시회 등 여러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또 다큐멘터리 촬영감독이 동행해 참가자들의 희로애락을 영상에 담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행사를 앞두고 오는 7월 5일까지 행사 홈페이지(www.dmz155mile.modoc.at)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일정 요건의 건강검진, 체력검정 등을 거쳐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의정부/이상헌 기자

통일 염원, 16일간 'DMZ 걷기'

道, 내달5일 강원 고성서 출발
日평균 16km씩... 100여명 모집
목적지 임진각까지 행사 다채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휴전선을 따라 평화동일을 염원하며 250km를 걷는 'DMZ 155마일 걷기' 행사가 오는 8월 5~20일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는 생명과 평

화가 숨 쉬는 비무장지대(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동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만 20세 이상 100여명을 모집해 15박 16일간 하루 평균 16km씩 걷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55마일 걷기 참가자들은 강원 고성을 출발해 인제와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까지 걷게 된다.

코스는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구간이 포함됐다.

숙박은 경기·강원지역 민간 숙박시설이나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

행사 기간 동안 DMZ의 생태·문화·역사를 체험하는 토크 콘서트, 작은 음악회, DMZ 체험전시회 등의 부대행사도 열린다. 도는 오는 7월 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후 일정 요건의 건강검진, 체력검정 등을 거쳐 걷기대회참가자를 최종 선발하며, 참가비는 없다.

참가 신청 등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www.dmoz155mile.modoo.at)를 참조하거나 대회운영사무국(02-498-7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진기자 jursch@kyeongin.com

중부일보

'DMZ 155마일 걷기' 참가자 내달 5일까지 모집

道 주최·경기관광공 주관 행사
만 20세 이상 성인 100명 선발

한반도 동(東)에서 서(西)로 길게 뻗은 DMZ 일원에서 펼쳐지는 'DMZ 155마일 걷기-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가 오는 8월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7월 5일까지 경기·강원 DMZ 일원 250km를 함께 걸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DMZ 155마일 걷기'는 국민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국방부, 강원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만 20세 이상 성인 100여명을 선발

해 8월 5일부터 20일까지 1일 평균 16km씩을 걸으며 15박 16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고성에서 출발, 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을 거쳐 파주에 이르기까지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걷게 된다. 걷기 코스에는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이 포함돼 있다.

숙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강원 내 민간 숙소시설이나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DMZ가 지닌 생태·문화·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 '작은 음악회', 'DMZ 체험전시회'를 비롯해 걷기구간 곳곳의 명소 및 유적지 탐방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8월 5일 출범식에는 접경지역 지자체 최초 DMZ 걷기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와 함께 종주기간 내내 다큐멘터리 촬영감독이 동행, 참가자들의 희노애락을 영상에 담아 DMZ의 생생한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7월 5일까지 'DMZ 155마일 걷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일정 요건의 건강검진·체력검정 등을 거쳐 최종 걷기 대원을 선발한다.

원주지에게는 종주 인증서가, 경기행사 공로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지역화폐 등)도 주어진다. 촬영인기자

DMZ 250km 우리 함께 걸어볼래요?

내달 5일까지 참가자 모집

경기도는 다음달 5일까지 경기~강원 DMZ 일원 250km를 함께 걸을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주최·주관, 국방부와 강원도 후원으로 열리는 'DMZ 155마일 걷기'는 국민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고자 마련된 행사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1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8월 5일부터 20일까지 고성에서 출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을 거쳐 파주에 이르기까지 경기·강원 접경지역 1일 평균 16km씩을 걷게 된다.

걷기 코스에는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 접근이 어려운 민통선 구간도 포함됐다.

숙박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강원 내 민간 숙소시설이나 도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게 된다.

DMZ가 지난 생태·문화·역사를 체험하는 '전문가·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 '작은 음악회', 'DMZ 체험전시회', 걷기구간 곳곳의 명소 및 유적지 탐방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며 건강검진, 체력검정 등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기호일보

DMZ 155마일 '평화의 길' 걸어요 내달 5일까지 홈페이지 참가 신청

오는 8월 DMZ 일원을 걸으며 도전정신과 인내심을 함양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DMZ 155마일 걷기-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 행사가 열린다.

도는 7월 5일까지 경기~강원 DMZ 일원 250km를 함께 걸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며 국방부 및 강원도가 후원한다. 생명과 평화의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고자 마련된 행사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100여 명을 선발해 8월 5일부터 20일까지 1일 평균 16km씩을 걸으며 15박 16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고성에서 출발해 인제 및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에 이르기까지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걷게 된다. 걷기 코스에는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이 포함돼 있다.

숙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강원 내 민간

숙소시설이나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를 적절히 병행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DMZ가 지난 생태·문화·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유명인사 초청 토크콘서트', '작은 음악회', 'DMZ 체험전시회', 걷기구간 곳곳의 명소 및 유적지 탐방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북측과 인접한 접경지역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DMZ 횡단 걷기 행사로, 8월 5일 출정식도 열린다.

이와 함께 종주기간 내내 다큐멘터리 촬영감독이 동행, 참가자들의 희로애락을 영상에 담아 DMZ의 생생한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DMZ 155마일 걷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일정 요건의 건강검진, 체력검정 등을 거쳐 최종 걷기 대원을 선발한다. 완주자에게는 종주 인증서가, 걷기행사 공로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지역화폐 등)이 주어진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DMZ 평화의 길’ 함께 걸어요

**道, 8월5~20일 행사 진행
내달 5일까지 참가자 모집**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걸으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DMZ 155마일 걷기-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 행사가 8월 열린다.

경기도는 다음달 5일까지 경기~강원 DMZ 일원 250km를 함께 걸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만 20세 성인 100명을 뽑아 8월5일부터 20일까지 이 행사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고성에서 출발해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까지 하루 평균 16km씩 걷는다.

걷기 행사와 함께 유명 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와 작은 음악회, DMZ 체험 전시회, 걷기 구간 명소 및 유적지 탐방도 함께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다.

원주자에게는 종주 인증서가, 걷기행사 공로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지역화폐 등)이 주어진다.

희망자는 DMZ 155마일 걷기 운영사무국(02-498-7778)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김은실기자 kmes@incheonib.com